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주도록”

모범학생 5명에 장학증서·장학금 수여·봉사활동 참여 회원대상 표창장 수여식 진행
Fun-Fun 나라사랑 행사- 호국영웅 알리기·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마련

▲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지리를 위해 길거리 캠페인 행사 가져

국가보훈처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대군인주간'으로 정했다.

(사)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은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국군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사모는 원광대학교 변화가에서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엽서를 작성하고, '제대군인주간 캠페인' 대학로 길거리 행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전협정과 한미군사협정'을 유지하며,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건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제4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 전북서부보훈지청 대강당에서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해

(사)자원봉사단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 장학재단에서 익산지역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해 희망을 주고 있다.

합사모(대표 김현석)는 전북서부보훈지청 대강당에서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전정희 국회의원, 이한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박연호 전북군경유족회 익산지회장, 조성에 IWPG익산지부장 등 시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사모는 지난해 봉사활동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작년 한해 보훈지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대상으로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의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 익산 합사모, 아하!데이 나눔페스티벌 'Fun-Fun 나라사랑' 행사 개최

제13회 아하!데이 나눔페스티벌에 (사)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 대표 김현석)'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합사모가 주관한 'Fun-Fun 나라사랑' 행사는 합사모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나라사랑 의식 고취와 우리지역 호국영웅 알리기, 분단극복 캠페인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부스에 △우리지역 호국영웅 알리기 △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 △퀴즈로 알아보는 나라사랑 다크 △호국영령 추모탑 쌓기 △무궁화 한반도 포토존 △떡매치기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특히 합사모 회원 50여 명의 플래시몹은 '전쟁종식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이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메시지를 담아 참여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행사를 체험한 김도은(43) 씨는 "아이에게 우리지역의 호국영웅에 대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심어줄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 행사에도 자녀들과 함께 꼭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사모는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함께 우리 지역 호국영웅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이날 행사에서도 역시 이규홍 의병장를 비롯해 백정기 의사, 조재미 대령, 김용주 대령, 차일혁 경무관, 안영권 하사, 지하신 일등사상, 강희중 일등사상, 황금재 일병 등 우리 지역의 호국영웅들을 소개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 익산시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 대회 참가

세상의 빛과 비와 공기같이 사랑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즐거운 한마당이 열렸다.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엄양섭)는 최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15 익산시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등 내빈과 함께 자원봉사자 및 가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참여한 자원봉사 22개 단체 중 (사)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은 13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합사모는 식전공연으로 대학생 50여 명의 '빛과 빛의 만남 자원봉사' 플래시몹과 워너스치어단의 힘찬 응원으로 화려하게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중 봉사나눔의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 50여 명의 플래시몹은 대학생들의 군무를 이루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1부 한마당 체육대회와 2부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눠 줄리기공원, 몸배바지릴레이, 오징어다리릴레이,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하고, 각 단체와 개인들은 노래와 댄스, 퍼포먼스 등 장기자랑을 펼쳤다.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엄양섭 이사장은 "이번 한마당대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만큼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즐겁게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익산 봉사단체 합사모, 2015년도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영예 거둬

익산지역 봉사단체인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합사모)'이 대한민국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 재능봉사단 경진대회에서 전북대표로 참가해 2015년도 최우수인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받았다.

합사모는 재능공연 부문에서 오고무 공연으로 전국 248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 196개 프로그램 중 최종 결선에 오른 8개 공연에 포함, 최우수상을 거머쥘었다.

김현석 대표는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에서 하늘문화 예술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주는 합사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2016

전북 노래 자랑 및 경연대회



11월 20일
전주 한옥마을
대강당

- ▶ 주최: 전주매일, 환경일보사
- ▶ 접수: 11월 18일
- ▶ 예선: 11월 19일
- ▶ 후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 ▶ 문의: 010-2131-0448(금병찬 환경신문본부장)

